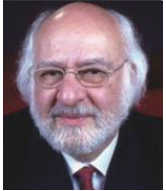


참가자 프로필

기조발제

기조발제



▶ 쉐리프 카즈나다

현재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대표이며 이문화간 대화의 주창자로서 널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유네스코 프랑스국가위원회의 사무부총장(2010-), 문화커뮤니케이션 위원회 회장(1997-), 프랑스무형문화유산센터 소장(2011-) 및 무형문화유산 정부전문가(2002-)로 활동 중이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문화저널리스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베이루트미국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다.

좌장

1세션 좌장



▶ 이근관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8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 18차 불법이전 문화재 환수 촉진 정부간위원회(2012)에서 2년 임기의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활동 중이다. 세계국제법학회 한국본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2001~2003), 대한국제법학회 국제이사를 역임 중이다(2009~현재). 주요저서로는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2003)", "국제법(2006)" 등이 있다.

2세션 좌장



▶ 박성용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과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에서 문화유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울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문화유산 담당자로 다년간 근무했으며, 그리피스대학교(브리스번) 문화예술대학에서 선임연구원('04~'06)을 역임하기도 했다.

3세션 좌장



▶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으로 동남아시아 유네스코 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 센터 이사를 역임 중이다. 그는 지난 15년간 문화 인류학자로서 유네스코의 국제 문화이슈를 담당 하였다. 또한 호주국립대학 아시아태평양대학에서 비누아투 밀라쿨라 나하이(Na'hai) 언어 사용자의 구전역사와 장소 간 관계에 관해 '장소에 관한 담화'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요토론 좌장



▶ 이삼열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사무총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철학 학사학위를 받은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사회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약 20년 동안 숭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2004-2008). 이후,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으로 더 나은 교육, 연수, 평화를 위한 국제이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바 있다(2004-2006). 아울러 한국철학회장 및 사단법인 에코피스 아시아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세션 1

대표자



▶ 장범익

국제문화유산법 전문가이며, 이란 사이드베헤스티대학 법대 부교수이다. 2000년에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국제규약 개발을 위해 유네스코의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였고, 2003년 협약을 위한 초안 그룹 서기로 활동한 바 있다. 2003년 협약 관련 주석서를 저술한 바 있으며, 2008년 4월 토착 언어 및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 보호에 관한 국제법률체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토론자



▶ 박상미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장이자 문화인류학 교수이다. 1986년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 학사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석사(1992)와 박사(1994)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 객원학자로 재직했다. 동아시아 맥락에서 문화와 국제화, 문화유산, 음식과 정체성, 소비, 성, 초국가주의 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있다.

토론자



▶ 육소영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0년 워싱턴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상표가치분석 - 미국, 유럽연합, 동아시아 상표법 분석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전통 지식의 보호(2004)", "고아 저작물과 저작권법의 목적(2011)", "특허풀(Patent Pool)과 시장경쟁(2006)", "거울상 이성질체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2005)" 등이 있다. 대전 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으로도 역임 중이다.

세션 2

대표자



▶ 피터 세이텔

1978년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직원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석민속학자, 웹마스터, 소장 대행, 소장직을 두루 역임 하였다. 연구소 재직 전에는 프린스턴대학교 인류학 조교수를 지낸 바 있다. 구비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비유, 묘사, 장르의 개념에 관해 저술하였다.

대표자



▶ 한경구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포연구협회 회장, 국제이해교육 한국협회 부회장, 환경사회학 한국협회 부회장, 한국 문화인류학과 한국 사회과학 저널 편집장, 그리고 코리아 저널 편집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환경운동연합회 정책기획위원회 회장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표자



▶ 안토니오 아란테

브라질 캄파인주립대학교 사회인류학과 교수이다. 공공정책 및 문화유산 전문가로써 비정부기구, 정부 및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같은 국제기구에서 프로그램 개발관련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상파울로 주립 역사보존위원회 (CON-DEPHAAT) 및 국립역사예술문화연구소 (IPHAN) 회장으로써 문화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대표자



▶ 한건수

현재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문화인류학회 이사,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교육개발 자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에는 국제이주, 동아시아의 다문화적 변화,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다국적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대표자



▶ 아디 메메 라투나부아부아

현재 피지 교육유산문화예술부 문화유산국 문화개발부장으로 재직중이며,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태평양지역 박물관협회 회장을 지내고 있으며, 태평양공동체사무국의 태평양지역 문화정책개발 회장으로써 피지 대표이다. 피지 문화기술대학 예술문화디자인 대학에서 16년간 부교수직을 역임한 바 있다.

대표자



▶ 박환영

현재 중앙대학교 비교민속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주제는 의례, 축제, 구술전통, 사회적 소통, 문화변화, 21세기 도시민속 등과 같은 사회문화와 사회민속이다. 1998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일본(오키나와), 중국, 몽골, 부탄 등 동아시아지역에서 활발하게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와 민속을 비교연구해오고 있다.

세션 3

대표자



▶ 임돈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민속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임돈희 교수는 인디애나 대학교 초빙 부교수를 지냈고, 현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이다. 또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국제이사회 부의장을 역임중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을 지내고 있으며, 유네스코 아이티 문화유산보호 전문가 및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 프로그램의 국제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2006).

대표자



▶ 아마레스와르 갈라

인도 뉴델리 소재 자와할랄네루대학교에서 수학한 갈라 교수는 문화 전문가이며, 호주 최초의 박물관학 교수로서 브리스번 퀸즈랜드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현재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인류발전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아태관측소 및 국제박물관협의회 교차문화 태스크포스 창립위원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수석자문위원, 국제박물관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표자



▶ 가우라 만차리타디푸라

다년간 인도네시아 전통 인형극 '달랑'을 연구한 기능보유자이다. 현재 달랑전문가이자 문화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1973년부터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의 문화와 문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저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박물관, 무형문화유산, 문화적 다양성 관련 협약 등에 대한 다양한 책과 논문을 번역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립크리스사미국 부회장이며 문화관광국과 KADIN 인도네시아재단, 유네스코인도네시아위원회, 문화연구발전센터의 자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대표자



▶ 이상현

현재 국립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독일 튀빙겐대학교 민속학과에서 독일의 민족주의와 민속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관심 분야는 무형유산의 정치학 그리고 한국 중소 도시의 일상생활과 문화 등이다.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장과 한국학연구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의 전문위원(RB)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이사



▶ 레 티민리

현재 베트남문화유산기증진연구센터의 소장이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1978년 호치민박물관 목록보존과의 전문가로 문화 분야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베트남 문화정보부의 보존박물관학과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에서 박물관학 및 문화경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문화연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역사, 정치사상, 문화재관리 분야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표이사



▶ 정정숙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실 연구위원이다. 1994년 '일본의 자민당 파벌 연구'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20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위원(2006~2008),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 겸임교수(2009), 및 아시아 문화포럼 운영위원(2010)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05)",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2006)", "문화분야 법제 정비방향 연구(2007)" 등 다년간 문화 분야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